

“백초월 스님 일대기, 스토리텔링 접목하자”

송명호 교수, 6월 10일 ‘백초월 스님 순국 70주기 학술세미나’서 제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불교계가 주도해 시나리오, 드라마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명호 중부대 교수는 6월 10일 백초월 스님의 순국 70주기 및 ‘국가보훈처 6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송 교수는 ‘스토리텔링으로 살펴본 백초월’에서 직접 쓴 ‘불혼(佛魂)’을 소개하며 “소설, 시나리오,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백초월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불혼’은 3·1 독립운동 정신과 민족 정체성 등 역사적식을 높이고자 제작한 작품”이라며 “불교 스토리텔링을 통해 먼저 신도교육에의 도입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가 소개한 ‘불혼’에는 백초월 스님 뿐만 아니라 만해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테라우치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 등 당시의 다양한 인물이 등장해 항일독립운동의 전개를 그려낸다.

첫 시작은 1907년 지리산 연극사에서 고광순 의병대가 몰살된 것에서 시작하며 조선불교 말살을 위한 일제의 조동종협약에 백초월 스님이 반발하는 내용, 진관사, 대각사, 경성감옥, 탑골공원 등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내용 등으로 이어진다.

이야기의 끝은 2009년 8월 10일 진관사에서 항일 태극기와 당시 백초월 스님이 피

낸 지하신문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에 대해 논평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계에서 이러한 활용방안을 적극 수용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선다면 포교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이같은 불교 스토리텔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근간한 것 △신도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될 것 △현대사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할 것 △다양한 영역의 자가를 발굴 할 것 △스토리텔러 양성과 활동의장 마련 △교육, 비즈니스, 상담 등 분야의 활동사례를 구축할 것 등이다.

김응철 교수는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불교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며 “불교 내부에서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구의 상업행을 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초월 민족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동원 독립기념관 책임연구위원이 ‘백초월의 민족운동과 혁신공보’를,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백초월 민족운동의 성격 및 위상’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진관사에서 70주기 추모제가 함께 열렸다. 추모제



송명호 교수(사진 왼쪽)의 발표 이후 김응철 교수(사진 오른쪽)가 논평을 통해 불교계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남기형 민족정기선양사업회 회장이 계호 스님에게 영구 보존용 태극기를 증정했다.

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패’ 봉정, 광복회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축하기념패’ 증정, 민족정기선양사업회의 ‘영구보존용 태극기’ 전달, 헌시 ‘태극기’ 낭송 등이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계호 스님은 “우리들에게는 백초월 스님 등 순국선열의 피땀 어린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며 “백초월스님 추모는 물론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행사에는 안중현 서울지방보훈청장, 백초월스님 증손자 백익식 선생, 하얼빈조선민족예술관 등 중국의 임시정부 독립기념관 관련부처 7곳의 해설사 8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il.com

“삼국유사에 민족의식 고취 ‘답’ 있다”

한국불교사학, <삼국유사> 인식 집중세미나

“육당 최남선을 시작으로 근대 학자들은 <삼국유사>를 민족의식과 문화의식의 바탕으로 삼았다. <삼국유사>의 단군 기록과 신화 원천 등을 조명하는 것은 일제의 민족문화 압살에 맞서는 전략이자 민족의식 고취 방안이었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사진)는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가 6월 7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의 <삼국유사> 인식’ 집중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고영섭 교수는 <삼국유사 해제>를 펴낸 육당 최남선의 의식은 ‘고조선’을 통해 단군을 복원한 일연 스님의 의식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민족 자존에 대한 흐름과도 맞닿아있음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최남선은 <삼국유사 해제>

집필을 통해 일본학계의 단군부정론에 대응하며 우리 역사를 복원하려 했다”며 “이러한 인식은 권상모, 리상호 등에 이어졌다. 2014년 최광식·박대재 등 현대 학자들까지 이런 ‘해제’를 원용하는 등 그 인식은 민족의식에 대한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삼국유사>에는 남과 북을 아우르는 민족의식을 담고 있어 현재 분단을 맞은 지금 역사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 이정표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삼국유사>에 대한 다양한 조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중세미나에서는 고운기 한양대 교수의 ‘퇴경 권상모의 <삼국유사> 인식과 번역’, 김성주 동국대 초빙교수의 ‘무애 양주동의 <삼국유사> 향가 인식’, 엄



기표 단국대 교수의 ‘우현 고우섭의 <삼국유사> 탐상 인식’ 등을 통해 근대 학자들이 <삼국유사>를 통해 각자의 학문분야에서 어떻게 민족의식 등을 인식했는지가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근대 외래종교가 불화에 미친 영향

동양미술사학회(회장 정우택)는 6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6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최평 가천대 교수의 ‘한국 근대기 불화에 보이는 외래종교와 미술의 영향’ 발표가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이선진 동국대 교수의 ‘18·19세기 철제임사공예품 연구’ △신현경 이화여대 교수의 ‘지림사 삼세불서 연구’ △이원복 경기도박물관 학계연구사의 ‘공민왕의 그림세계’ △정우택 동양미술사학회장의 ‘조선전기 지장보살설법·18지장도’ 등이 발표된다.

정우택 학회장은 “근대 미술에 미친 다양한 주변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라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불교도서 7종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인문학 분야 5종 · 한국학 분야 2종

대한민국학술원이 최근 2014년도 기초학문육성 우수학술도서 총 300종을 선정한 가운데(인문학 93종, 사회과학 88종, 한국학 51종, 자연과학 68종)를 선정한 가운데 불교관련 학술서적은 총 7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정목록에 따르면 인문학 분야에 선 △라드나끼르피 저·우제선 역 <찰나 명논증> △김종명 저 <국왕의 불교관과 치국책> △전홍철 저 <돈황 민간문학 담론> △강우방 저 <수월관음의 탄생> 등 5종이

선정됐다.

한국학분야에서는 △최병현 저 <한국불교사연구입문> △정효구 저 <한용운 ‘님의 침묵’ 다시읽기> 등 2종이 선정됐다.

한편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도서들은 각각 1500만원 내외에서 이를 구입해 대학도서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백용성 대종사 총서’ 번역 워크숍

대각회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은 6월 26일 오후 2시 동국대 총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은 백용성 대종사 자료 보존과 사상 계승 및 현장을 위해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워크숍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의 ‘근대문화화재 등록의 문제점’ △임영민 문화재단

연구소 연구원의 ‘근대고승의 문화재 발굴 및 정리방향’ △김광식 동국대 교수의 ‘백용성 대종사 자료의 발굴 및 현황’ △봉선사 지환 스님의 ‘근대 고승의 일대기 샘플 및 시화연구’ 등을 발표한다.

보광 스님은 “2차년도에는 백용성 조사의 관련 추가 자료인 기고문, 보도기사문, 서간문, 비명 등을 조사·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그동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반 문제점과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02)6713-5138

노덕현 기자

‘동아시아 불교’ 한·중·일 공동학술대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권탄중)는 6월 21~22일 양일간 일본 동양대에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의 대립·논쟁과 그 의의’를 주제로 제3회 한·중·일 공동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금강대와 일본 동양대, 중국 인민대가 공동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혜림 인민대 부총장의 ‘아베 마사오(阿部正雄)의 종교 대화 이론’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한지연 금강대 HK교수의 ‘서역에서 소승교단과 대승교단은 대립했는가’, △하야시 카나 금강대 HK교수의 ‘아미타신

앙과 미륵신앙의 대립’, 장규연 금강대 HK교수의 ‘중관과 유식의 관계에 대한 원측 인식의 특징’ 등이 발표된다.

중국 측에서는 △쉬엔팡 인민대 교수의 ‘인순과 여정의 (아비담삼론) 의견에 대한 검토’, △장원량 인민대 교수의 ‘진관의 해원 비판과 화엄종 조통설’ 등이 발표된다.

일본 측에서는 요시무라 마코토 동양대 교수의 ‘중국 화엄사상에 있어서의 유식 사상의 해석’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의례문화학, 한·중·일 의례 조명

동아시아불교의례문화연구소(소장 법안)는 6월 28일 오후 2시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문수실에서 ‘제3차 상반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중국절강성 철학연구소 교수 법지 스님이 ‘중국사원의 의규 약람’을 통해 현재 중국불교 사원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제반의례를 살펴본다.

또 이성운 조계종 의례실무위원회 ‘수

록재의 이운과 차서의 정합성 고찰’을 통해 현행 수록재와 영산재 이운의식의 차이와 차서 정합성을 고찰하고 현재의 행법에 대해 <범음산보집>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선 前불교문화재단연구소 소장 미등 스님, 불찬음악연구소 소장 헤일 스님, 오용석 조계종 교육원 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노덕현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학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